

케인즈의 雇傭・物價理論小考

A Study on Keynes's Employment and Price Theory

朴 一 根*

Abstract

The mainpoints of General Theory is 1) the mainspring of economic activity is effective demand which can expand or contract in relation to supply as a result of spontaneous decision by customer or government.

2) change in effective demand produce change in output and employment in the same direction

3) which given productivity of labour the price level depend on the money supply affect the in downward direction

4) change in the money supply affect the economy through the rates of interest

5) the only automatic mechanism through which the economy can adjust itself to a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is the long process by which unemployment reduces wage rates and consequently the demand for money and interest rates, above summarized contents are General Theory framework.

The neo - classical macro 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has been reconstructed subsequent to Keynes's criticism is treated the neo - classical macro-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inherits the classical theories of labour market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on demand side, it introduce the Keynes's macro - 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function through flexible movement of prices, wage and interest.

Nowdays, Keynes General Theory is being developed into new dimension i, e. the macro - disequilibrium theory, and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theory and it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are being reinterpreted and substantiated.

1. 序 論

케인즈(J. M. Keynes)의 一般理論은 1936年 發刊以後로 수많은 經濟學者에 의해 內容이 分析되고 縮少・廣大되면서 解釋되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석의 方向이 統一되지 못하고 論爭을 계속하는 것은 그의 理論의 多面性과 概念이 不明確한데도 原因이 있다. 그러나 失業과 不況을 主題로한 이 理論은 1950年代에 와서 stagflation・公害問題・分配問題・inflation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經濟學者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비판은 공교롭게도 케인즈의 分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정이

다. 이것은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生命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本論文에서는 케인즈의 雇傭物價에 대한 理論을 檢討하면서 케인즈理論이 가지고 있는 限界點을 비판하고자 한다.

케인즈를 一般均衡理論범위에서 해석하는 主流經濟學派와 不均衡을 前提로 하는 不均衡論者들의 케인즈解釋을 結論으로 대신하려 한다. 現代經濟學은 케인즈의 不確實性의 概念을 좀더 確實히 하고자 하는 合理的 期待學派와 貨幣의 重要性을 재음미하여 古典學派의 貨幣數量說을 대두시키는 通貨主義者 理論 間に 論爭이 發生하였다.

케인즈의 供給函數의 分析을 비판하면서 政策으로

* 前大邱工業專門大學 工業經營科 專任講師
現：嶺南大學校 講師

실시되는 供給側面 經濟學은 케인즈經濟學의 革命性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즈理論에 대한 범주속에서 재음미하는 것이 妥當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論文은 이러한 비판적 立場에서 現代經濟의 雇傭과 inflation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目的을 두고자 하는 시도일 따름이다.

2. 케인즈 一般理論體系

1936年 케인즈는 一般理論(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을 發表했다. 時事性있는 政策問題에 관한 방대한 量의 論文과 pamphlet을 남겼으나 순수한 經濟理論에 관한 著書는 「貨幣改革論」¹⁾·「一般理論」²⁾·「貨幣論」³⁾ 등을 제외하고는 그의 著作은 著書와 論文을 합하여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理論의 인 著作의 수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는 거의 當時代의 人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學問의 內容과 理論의 本質에 대한 評價가 구구하다는 事實은 놀란만하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理論을 위한 理論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事實이다. 둘째 實用主義의인 理論觀을 가졌기 때문에 基本理論을 變更하는 것을 예사로 했고, 항상 一貫된 政策勸告가 없다는 事實이다.

本質의으로 케인즈가 「一般理論」에서 追求하고자 한 內容의 本質을 理解하려면 1930年代의 經濟的 現實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1920年代 초반 「貨幣改革論」을 쓴 1924年 당시에는 케인즈의 관심사는 英國經濟의 復興과 失業問題였다. 이에 대한 政策의 虛妄은 처음부터 賃金率의 引下라는 當時의 通論이 아니라 一貫하여 自由放任의 拋棄, 貨幣의 管理, 디플레이션 政策의 揚止, 公共事業에 대한 投資, 國內投資의 支出 등이었다. 즉 「一般理論」의 問題意識은 1920年代 초부터 있었고 이에 대한 政策手段도 1920年代 거의 完全히 착안되었다. 다만 이 政策을 뒷받침하는 理論이 없

었다. 이때 케인즈는 古典學派의 正統的 理論을 가지고는 現實經濟構造나 大量失業의 發生原因에 대한 새로운 政策手段의 妥當性을 설명할 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케인즈는 「貨幣改革論」을 發表한 1924年 부터 「一般理論」을 發表한 1936년까지 12年間은 새로운 理論을 開發하고자 한 긴 鬭爭⁴⁾을 展開했던 것이다. 케인즈理論의 根本的인 주요한 관찰은 勞動者의 저항은 實質賃金의 下落이 아니라 貨幣賃金의 下落이라는 事實的인 命題⁵⁾와 利率이라는 것은 古典學派에서 말하는 抽象的인 것이 아니라 實質的인 金錢貸與에 대한 代價라는 事實⁶⁾과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貯蓄은 古典學派가 主張하는 所得-消費=投資支出이 아니라 다만 消費의 減少에 불과하고 自動的으로 投資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主張⁷⁾이다.

貨幣賃金水準은 勞動의 需要와 供給에 의한 決定이 아니라 대체로 硬直的이며 歷史的으로 決定된 價格이라는 觀察⁸⁾, 그리고 賃金水準이 物價에 대해 가장 決定的인 영향을 미친다는 事實⁹⁾ 등이다.

다음으로 케인즈는 「一般理論」에 있어서 人間의 三大心理法則(three psychological laws)이 國民總生産·雇傭 등의 從屬變數를 설명하는 獨立變數로서 되어 있다.¹⁰⁾ 그래서 總需要는 消費需要와 投資需要로 構成되는데 消費需要는 消費函數라는 心理的 要素와 投資需要는 資本의 限界效率이라는 心理的 要素와 流動의 選好라는 心理的 要素에 의해 決定된다.

케인즈의 貨幣理論의 핵심은 不確實한 將來에 대한 豫想의 變化가 주로 投資를 통해 現在의 經濟狀況에 영향을 미쳐서 景氣變動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만약 將來가 確實하고 固定되어 있다면 完全雇傭下의 均衡이 항상 可能하지만 將來가 不確實하고 變化한다면 均衡 자체가 變化하는 것이다. 그러면 將來에 대한 期待가 變한다면 現在와 將來를 연결하는 고리(環)로서 貨幣가 媒介體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1) J. M. Keynes, *A Tract on Monetary Reform*, 1924.

2) _____,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 1936.

3) _____, *The Treatise on Money*, 1930.

4) _____, *op. cit.*, 1936, 序文.

5) *Ibid.*, pp. 5 ~ 18.

6) I. Fisher, "The Theory of Rate of Interest," in *The Lessons of Monetary Experience: Essays in Honour of Irving Fisher*,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IV, pp. 101 ~ 123.

7) J. M. Keynes, *op. cit.*, 1936, pp. 210 ~ 213.

8) *Ibid.*, pp. 251 ~ 254.

9) *Ibid.*, Chapt 21.

10) 趙 淳, 「케인즈理論과 思想에 관한 小考」,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18(4). 1979, 12.

따라서 「變化하는 豫想이 現在의 經濟活動에 미치는 効果에 대한 論議는 貨幣的 見地를 떠나서는 시작할 수 없다」¹¹⁾는 것이 케인즈의 見解이다.

이와같이 케인즈의 理論의 핵심은 資本市場이 高度로 發達되어 있는 現代資本主義經濟에서 不確實한 將來에 대한 經濟主體의 期待가 貨幣를 媒介로 하여 現在의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므로 經濟의 現在 有效需要를 결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將來에 대한 期待의 內容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程度로 자극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의 程度로 萎縮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 一般理論이 오직 不況時 失業理論인 것처럼 해석되고 있으나 論理的 見地로 본다면 케인즈 理論은 失業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適用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케인즈 理論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金融資本市場에 있어서의 不確實性의 作用이 有效需要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는 過程에서 景氣變動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原動力은 投資이다. 投資는 將來에 있어서의 利潤에 대한 企業의 期待(expect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케인즈에 의하면 將來의 利潤에 대한 期待는 短期的 期待(short-term expectation)와 長期的 期待(long-term expectation)가 存在한다. 短期的 期待란 既存 生産施設을 使用하여 最終生産財를 生産할 경우에 豫想되는 利潤이며, 長期的 期待란 生産施設 自體를 變更시킬 경우에 豫想되는 利潤인 것이다.¹²⁾

그러므로 現在의 企業에서 需要하는 雇傭은 長·短期的 期待에 의해 決定되며 投資는 長期的 期待에 의해 이루어진다. 經濟變動의 時空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變數는 資本의 限界效率인데 이것은 利潤에 대한 企業의 長期的 期待를 反映하는 心理的 要因인 것이다.

以上の 基本概念을 생각하면서 케인즈 理論의 要約과 內容의 核心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³⁾

- I. 雇傭과 所得은 有效需要의 函數이다.
 $N = Y = f(D)$
- II. 有效需要는 消費性向과 投資量에 依存한다.
 $D = f(C_p, I)$
- III. 消費性向이 安定되어 있으면 雇傭은 投資量에 依存한다.
 $N = f(I)$

IV. 投資는 利率과 資本의 限界效率에 依存한다.

$$I = f(r, rm)$$

V. 利率은 貨幣數量과 流動性 選好에 依存한다.

$$r = f(\bar{M}, L)$$

VI. 資本의 限界效率은 期待利潤率과 資本資產의 更新費用(供給價格)에 依存한다.

$$Mr = f(Er, C)$$

이상 6가지 內容을 볼 때 케인즈 理論의 核心은 첫째 所得과 雇傭에 미치는 投資에 대한 重要性을 설명하면서 投資乘數理論을 전개한 것이다. 두번째는 投資에 影響을 미치는 利率을 설명하면서 資本의 限界效率을 설명한다. 세째로 利率에 미치는 貨幣供給에서 流動性 選好理論에 미친 影響과 貨幣經濟와 有效需要에 의한 實物經濟가 상호 有機的으로 結合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상 6가지 內容을 좀더 상세한 方程式 體系로 細分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I. $M = L(Y) + L(r)$: (貨幣經濟의 均衡條件)
- II. $I(r) = f(m)$: (投資量 決定條件)
- III. $C = X(Y)$: (消費函數)
- IV. $S = S(Y)$: (貯蓄函數)
- V. $I(r) = S(Y)$: (貯蓄 = 投資 所得決定理論)
 $Y = C + I$: (國民所得定義式)
- VI. $Y = Y(N)$: (總體의 生産函數)
- VII. $\frac{dY}{dN} = \frac{W}{P}$: (勞動需要函數)
- VIII. $W = W_0$: (勞動供給函數)
- IX. $N\left(\frac{W}{P}\right) = W_0$: (雇傭量 決定理論)

이상 I式 $M = M_1 + M_2$ $M_1 = kY$

$$M_2 = \bar{M} - KY \text{이다.}$$

$$M = M_1 + M_2 = L(Y) + L(r) \text{가}$$

도출된다.

國民所得이 外生變數로 주어지면 利率 r 는 決定된다.

$I(r) = f(m)$ 은 $M_2 = L_2$ 이므로 r 가 外生變數이면 $I(r) = f(m)$ 이 決定된다.

消費는 所得의 函數이므로 總需要函數는 $C + I$ 가 도출되며, 貯蓄도 所得의 函數이므로 III + IV 式으로 總供給函數 $C + S$ 가 되며 均衡國民所得은 I

11) J. M. Keynes, *op. cit.*, 1936, p. 294.

12) *Ibid.*, Chapt 12.

13) Dudley Dillard, "The Economics of Jhon Maynard Keynes," *The Theory of a Monetary Economy* (N. J. : Printice - Hall, Inc., 1958), p. 49.

(r) = $S(Y)$ 에서 決定되면 $Y = C + I = C + S$ 와 同一하게 되는 것이다.

總體的 生産函數 $Y = Y(N)$ 에서 雇傭量 N 은 勞動需要函數 $\frac{(D-\mu)}{P^*} - \frac{d_0}{d_N} = \frac{W}{P^*}$ ($\cdot \frac{d^2_0}{d_N^2} < 0$)에서 주어진 有效需要의 크기에 따라서 企業家는 利潤이 極大가 되도록 勞動을 需要하고 勞動의 供給函數는 $W = W_0$ 이므로 $N(\frac{W}{P}) = W_0$ 에서 均衡勞動量이 決定되면서 勞動市場의 均衡이 이루어진다.

케인즈 理論은 雇傭과 所得에 대한 巨視中心理論임에는 틀림없다. 雇傭과 所得을 決定하는 要因은 投資이다. 이 投資가 確實한 要因인 利子率과 不確實한 要因인 資本의 限界效率에 依存한다. 그러면 이 不確實한 要因인 資本의 所得效率을 어떻게 測定해야 하는 것이 有效需要理論의 핵심이 될 것이다.

確率論의인 手法에 의해 不確實性을 確實性으로 轉換할 수만 있다면 古典學派의 理論도 합당하고 케인즈 理論은 不必要하게 될 것이다. 이 不確實性이 經濟學의 가장 큰 弱點임에 틀림없다. 이 不確實性을 케인즈는 不確實性下에서 어떻게 行動하느냐 하는 人間心理의인 설명으로서 하고 있다.

國民所得이나 雇傭이 케인즈의 從屬變數인데 獨立變數인 消費, 資本의 限界效率, 流動性 選好를 人間の 心理的인 要因으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 理論의 論難과 批判과 解釋의 相異性이 되면서 實際의인 政策適用에 問題點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케인즈의 雇傭과 物價變動要因을 차례대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3. 케인즈의 物價理論

케인즈의 物價理論은 그의 貨幣論(A Treatise on Money I, Pure Theory of Money, 1930)에서 基本的인 貨幣理論의 골격이 언급되어져 있다. 그러나 物價變動의 根本要因을 구분하여 理論을 展開한 것은 一般理論¹⁴⁾ 21章에 있다.

케인즈의 物價變動은 有效需要의 變化, 貨金率의 變化, 貨幣數量的 變化에 따른 生産 및 物價의 變動으로 3가지 要因에 의해 物價理論을 구성하고 있다. 物價變動의 分析方法은 古典學派의 貨幣數量說을 전제로 有效需要 · 貨金率 · 貨幣數量的 變動에 따른 雇傭과 物價의 움직임을 彈力性의 分析概念으로 分析하였다.

古典學派 理論은 經濟體系를 二元化하여 實物經濟 理論에서는 需要供給의 彈力性으로 市場經濟를 分析하는 반면 貨幣經濟理論($PT = MV$)에서는 彈力性의 概念을 포기하고 供給의 彈力性이 零이라는 假定 위에 需要(MV)만이 貨幣量에 比例적으로 變化하여 ($e = 1$) 物價가 正比例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古典學派의 경우는 需要彈力性 $e_d = 1$, 供給彈力性 $e_o = 0$ 이고 이에 따른 物價의 變動은 $e_p \cdot e_p' = 1$ 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케인즈는 貨幣量 變化에 따른 有效需要의 變化는 $0 \leq e_d \leq 1$ 이고, 有效需要의 變化에 따른 生産量의 變化는 $0 \leq e_o < 1$ 이고, 貨金의 變化는 $0 \leq e_w \leq 1$ 이다.

이상 3 要因의 結果로서 物價의 變動은 $0 \leq \frac{e_p}{e_p'} \leq 1$ 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物價變動을 케인즈는 有效需要의 變化에 따른 彈力性關係로 分析한다.

3.1 有效需要 變化에 따른 生産 및 物價의 變動

有效需要의 變化와 產出量과 物價變動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은 前題가 必要하다.

産業에 있어서 貨金單位로 特定한 有效需要
 $= D_w$

産業에 있어서 貨金單位로 特定한 生産物의 價
 格
 $= P_w$

産業에 있어서 產出量을 O_r

로 假定하면

$$D_w = O \cdot P_w$$

이다.

D_w 에서 ΔD_w 를 설명하고자 D_w 式을 다음과 같이 變形하여 ΔD_w 를 誘導할 수 있다.

$$P_w \cdot \Delta O + O \cdot \Delta P_w = \Delta D_w$$

이것을 D_w 로 나누면

$$\frac{P_w \cdot \Delta O}{O \cdot P_w} + \frac{O \cdot \Delta P_w}{O \cdot P_w} = \frac{\Delta D_w}{D_w}$$

$$\frac{\Delta O}{O} = \frac{\Delta P_w}{P_w} = \frac{\Delta D_w}{D_w}$$

이며 이것을 $\frac{\Delta D_w}{D_w}$ 로 나누면

$$\frac{\Delta O}{O} \cdot \frac{\Delta D_w}{D_w} + \frac{\Delta P_w}{P_w} \cdot \frac{\Delta D_w}{D_w} = 1$$

14)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ST. Martin Press, Royal Economic Society, 1973), pp. 292 ~ 312.

II象限에서 有效需要가 $\Delta D_w (D_{w0} - D_{w1})$ 만큼 變하면 雇傭函數 $N = f(d_w)$ 에 의하여 雇傭量은 ΔN 만큼 增加하고 生産函數 $O = \pi(N)$ 函數에 의해 産出量은 ΔO 만큼 增加하여 物價는 使用者 費用 U 와 N 의 勞動의 限界生産力の 合인 限界費用曲線의 기울기인 ΔP 만큼 上昇한다.

즉, 産出量과 價格上昇의 관계는 각 函數의 彈力性에 決定되며 I象限의 限界費用曲線의 기울기에 의해 表示되는 것이다. 一般의으로 有效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雇傭(産出量·所得)과 物價는 上昇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雇傭이 增加하지만 完全雇傭에 接近함에 따라 物價가 騰貴하고 完全雇傭點에 도달하면 雇傭은 增加하지 않고 物價만 上昇시키는 데 消盡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雇傭의 增加함에 따라 物價가 上昇하는 3 가지 重要한 理由를 Dillard¹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失業의 減少함에 따라 勞動者의 契約地位가 強化되기 때문이다. (Enhanced Bargaining Position of Workers as Unemployment Declines)

둘째, 短期에 있어서는 收穫進減의 法則이 作用하기 때문이다. (Diminishing Returns in the Short-run)

셋째, 生産에 隘路가 發生하기 때문이다. ("Bottle-neck" in Production)

3.2. 賃金率 變化에 따른 生産 및 物價의 變化

이제까지 一定하다고 假定한 賃金率도 完全雇傭點에 이르면 貨幣로 나타낸 有效需要 變化에 따라 生産 및 物價도 함께 變化한다. 이 關係를 數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_w = \frac{P}{W}$$

이므로

$$\begin{aligned} \Delta P &= W \Delta P_w + P_w \Delta W \\ &= W \left(\frac{\Delta P_w}{P_w} / \frac{\Delta D_w}{D_w} \right) \cdot \frac{P_w}{D_w} \Delta D_w + \frac{P}{W} \Delta W \\ &= W e_p' \frac{P}{D} \cdot \Delta D_w + \frac{P}{W} \Delta W \\ (\therefore D_w = \frac{P}{W} = \frac{W \Delta D - D \Delta W}{W} \end{aligned}$$

$$\begin{aligned} &= \Delta D - \frac{D}{W} \Delta W \\ &= e_p' \frac{P}{D} \left(\Delta D - \frac{D}{W} \Delta W \right) + \frac{P}{W} \Delta W \\ &= e_p' \frac{P}{D} \cdot \Delta D + \Delta W \frac{P}{W} (1 - e_p') \end{aligned}$$

그래서

$$\frac{\Delta P}{P} / \frac{\Delta D}{D} = e_p' + \frac{\Delta W}{W} / \frac{\Delta D}{D} (1 - e_p')$$

이다.

有效需要의 貨幣賃金彈力性:

$$e_w = \frac{\Delta W}{W} / \frac{\Delta D}{D}$$

有效需要의 貨幣價格彈力性:

$$e_p = \frac{\Delta P}{P} / \frac{\Delta D}{D}$$

이므로

$$\begin{aligned} e_p &= e_p' + e_w (1 - e_p') \\ &= 1 - e_0 + e_w [1 - (1 - e_0)] \\ &= 1 - e_0 (1 - e_w) \\ \therefore e_p + e_0 (1 - e_w) &= 1 \end{aligned}$$

이상의 方程式은 케인즈의 一般化된 貨幣數量說의 제 1보(첫걸음)이다.¹⁶⁾

$e_p + e_0 (1 - e_w) = 1$ 인 式에서 $e_0 = 0$, $e_w = 1$ 이면 生産量은 變하지 않고 物價만 有效需要와 同一한 比率로 上昇하게 된다.

3.3. 貨幣量 變化에 따른 物價의 變化

케인즈는 一般理論體系의 마지막 考察로 貨幣量 變化에 따른 有效需要의 變化, 有效需要變化에 따른 賃金率, 生産量, 物價의 變化를 物價彈力性方程式으로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¹⁷⁾

一般理論 21章에 이르면 케인즈는 古典學派의 貨幣數量說의 中心理論인 貨幣流通連度의 不變이라는 假定을 버리고 보다 一般化된 貨幣數量說과 經濟體系變化와의 關係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貨幣數量의 有效需要 彈力性:

$$e_p = \frac{\Delta D}{D} / \frac{\Delta M}{M}$$

15) Dudley Dillard, *op. cit.*, 1958, 8th ed., pp. 228 ~ 235.

16) J. M. Keynes, *op. cit.*, p. 285.

17) *op. cit.*, 1973, pp. 292 ~ 309.

貨幣數量的 物價彈力性 :

$$e = \frac{\Delta P}{P} \Big/ \frac{\Delta M}{M}$$

$$e = \frac{\Delta P}{P} \Big/ \frac{\Delta D}{D} \cdot \frac{\Delta D}{D} \Big/ \frac{\Delta M}{M}$$

$$= e_p \cdot e_d$$

$$\therefore e_p = 1 - e_0(1 - e_w)$$

이므로

$$= e_d (1 - e_0(1 - e_w))$$

$$= e_d \left\{ 1 - e_0 \frac{\Delta D}{D} \Big/ \frac{\Delta N}{N} (1 - e_w) \right\}$$

케인즈는 彈力性 e 方程式을 貨幣數量的說의 「一般의인 敘述方程式」¹⁸⁾이라고 말하고 全體經濟體系(實物 및 貨幣經濟)를 하나의 方程式으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즈體系에 들어오는 完全雇傭의 貨幣數量的說은 $e_p = 1$ 인 有效需要의 變化가 貨幣數量에 比例할 때의 $e_0 = 0$ 인 有效需要의 變化에 대한 產出量의 變化가 없을 때 $e_w = 1$ 인 賃金率의 變化가 有效需要의 變化에 正比例下에서 物價만이 變할 때이다.

以上的 3條件이 成立하는 경우는 케인즈의

$$e = e_p \left[1 - e_0 \frac{\Delta D}{D} \Big/ \frac{\Delta N}{N} (1 - e_w) \right]$$

方程式에서는 完全雇傭이 이루어진 特殊한 경우이며 一般的으로 不完全雇傭下의 e 方程式이 一般的이다.

3.4 케인즈의 理論體系와 雇傭理論

케인즈모델의 方程式 體系를 賃金單位(wage unit)로 表現해보면,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I. M = L_1(Y_w) + L_2(r) :$$

(貨幣經濟의 均衡條件)

$$II. I_w(r) = f(m) :$$

(投資量 決定理論)

18) *Ibid.*, p. 305.

19) 유도과정 : 收入 $(R) = P \cdot O$

$$\text{費用 } (K) = (U \cdot O) + (W \cdot N)$$

$$\text{利潤 } (\lambda + V) = R - K = P \cdot O - \{U \cdot O + W \cdot N\}$$

企業의 利潤極大條件

$$\frac{d(\pi + V)}{dN} = P \cdot \frac{dO}{dN} - U \frac{dO}{dN} - W = 0$$

$$(P - U) \frac{dO}{dN} = W$$

$$\frac{P - U}{P^*} \cdot \frac{dO}{dN} = \frac{W}{P^*}$$

케인즈體系에서 $P \cdot U \cdot P^*$ 는 一定하므로 $\frac{dO}{dN}$ 는 實質賃金의 函數이다.

$$III. C_w = f(Y_w) :$$

(消費函數)

$$IV. S_w = S(Y_w) :$$

(貯蓄函數)

$$V. S_w(Y_w) = I_w(r) :$$

(貯蓄 = 投資 所得決定理論)

$$VI. Y_w = Y_w(N) :$$

(總體의 生産函數)

$$VII. \frac{dY_w}{dN} = \frac{W}{P} :$$

(勞動需要函數)

$$VIII. W = W_0 :$$

(勞動供給函數)

$$IX. N \left(\frac{W}{P} \right) = W_0 :$$

(勞動量 決定理論)

이상 9개의 方程式으로 構成된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 雇傭理論을 살펴보면 古典學派 Macro 모델과 케인즈體系의 雇傭理論의 差異點은 雇傭量 決定의 自律性과 非自律性, 實質賃金의 市場變數概念과 關係되고 있다. 그러면 古典學派 雇傭理論의 두 가지 公準을 설명하고 케인즈 雇傭理論을 설명하고자 한다.

第1公準 : 賃金은 勞動의 限界生産物과 같다.

$$\frac{P - U}{P^*} \cdot \frac{dO}{dN} = \frac{W}{P^*}$$

P : 價格

P^* : 賃金財의 價格水準(物價)

U : 使用者費用

O : 產出量

N : 雇傭量

W : 貨幣賃金

$\frac{W}{P^*}$: 實質賃金

따라서 有效需要의 生産彈力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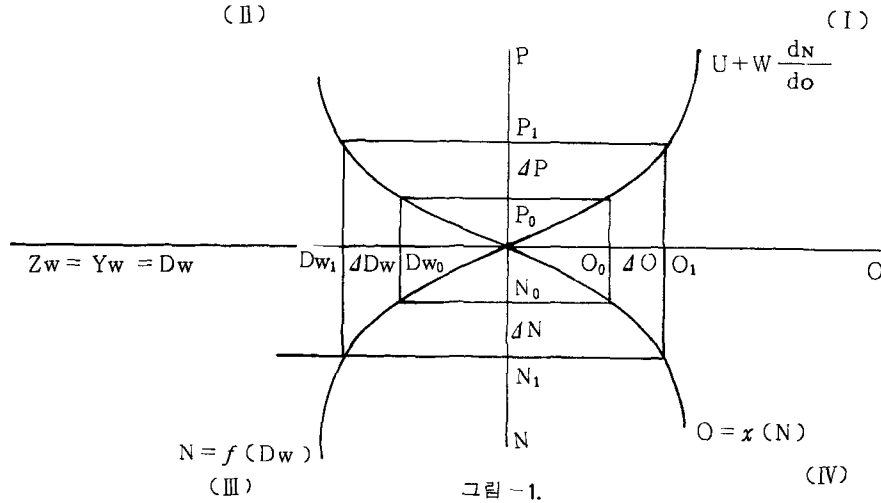
$$E_0 = \frac{\Delta O'}{O} \bigg/ \frac{\Delta D_w}{D_w}$$

有效需要의 價格彈力性

$$e_p = \frac{\Delta P_w}{P_w} \bigg/ \frac{\Delta D_w}{D_w}$$

$$e_0 + e_p = 1$$

有效需要의 變化에 따른 物價(價格)의 彈力性과 產出量의 彈力性의 合이 되며 有效需要의 變化는 일부분 價格에 일부분 產出量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 과 같다.



第2公準: 一定量의 勞働이 雇傭되어 있을 때 賃金의 効用은 勞働의 限界非効用과 같다.

$$W \cdot \frac{\mu}{P^*} = \frac{d_T}{d_N} \quad (20)$$

W: 賃金財單位로 測定한 貨幣의 限界効用
($\rho^* \cdot \mu$)

μ : 貨幣의 限界効用

T(N): 全部 苦痛

第1公準은 勞働의 需要曲線, 第2公準은 勞働의 供給曲線을 제공하며, 1, 2公準은 모두 實質賃金의 函數이다. 따라서 雇傭量과 賃金은 經濟體系의 다른 部分과는 關係없이 勞働市場의 純粹競争力에 의해 需給一致點에서 決定되는 市場의 自律性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古典學派의 勞働市場은 經濟의 各部分 相互關係에서 하나의 完備된(self contained) 部分이다.

따라서 古典學派 Macro 體系에서는 勞働市場의

20) 剩餘效果(S) = 全部效果(U · W · N) - 全部苦痛[T(N)]

$$\text{勞働者의 剩餘極大條件} \quad \frac{dS}{dN} = \mu \cdot W - \frac{d_T}{d_N} = 0$$

$$\mu \cdot W = \frac{d_T}{d_N}$$

$$P^* \cdot \mu \cdot \frac{W}{P^*} = \frac{d_T}{d_N} \quad (P^* \cdot \mu = W)$$

$$W \cdot \frac{W}{P^*} = \frac{d_T}{d_N}$$

P^* 는 一定하고 μ 는 常數이므로 $\frac{d_T}{d_N}$ 는 實質賃金의 函數이다.

雇傭量水準에 따라 總體的 生産函數²¹⁾를 통해 所得이 決定되므로 勞動市場은 古典學派體系의 決定因子(terminate sub-system)이다.

케인즈는 古典學派의 競爭의이며 體系決定的인 市場論에 비해서 雇傭理論 自體가 經濟 各部分의 相互作用에 의한 有效需要의 크기에 의해 雇傭量이 決定된다. 이러한 有效需要의 雇傭量 決定理論을 古典學派의 市場概念에서 음미해보면 實物市場均衡과 勞動市場不均衡의 巨視失業均衡體系이다.

市場의 케인즈理論에서는 有效需要에 의해 市場의 크기가 주어진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市場의 非自律性을 의미한다. 주어진 市場規模下에서 勞動을 需要하는 企業者간에는 實質賃金變數의 競爭의 市場이 形成된다는 第1公準을 認定하는 것이다. 勞動者는 市場競爭力를 상실하고 주어진 最低貨幣賃金을 수락한다는 第2公準을 否定하는 勞動市場이 半競爭의 理論이다. 케인즈는 一般理論²²⁾에서 古典學派의 第2公準을 2가지 이유에서 否定한다.

첫째, 勞動者는 貨幣償還에 의해 物價가 上昇해도 最低 貨幣賃金下에서 勞動供給을 계속한다.

둘째, 實質賃金의 一般의 水準의 勞務間의 賃金去來에 의해 直接的으로 決定되지 않는다.

以下 두 立場은 供給의 自律性을 否定하고 制度的 要因(勞動組合)이 貨幣賃金率의 最低下限線(W_0)을 設定한다고 보는 한편 完全雇傭點까지의 貨幣賃金率의 下方硬直性을 강조했다. 따라서 雇傭量이 增大하기 위해서는 勞動供給函數가 下向할 수 없고 勞動의 需要函數가 變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勞動需要函數의 移動에는 物價가 一定할 때와 物價가 上昇할 때 두 가지 事項이 存在할 수 있다. 物價가 一定할 때에는

$$\frac{P-U}{P^*} \cdot \frac{dO}{dN} = \frac{W}{P^*}$$

$$\left(\cdot \frac{d^2O}{dN^2} < 0 \text{ 限界生産力遞減} \right)$$

$$W = W_0$$

이므로 企業家는 주어진 國民所得水準(有效需要의 크기)과 勞動者의 最低貨幣賃金率下에서 限界生産力이 極大가 되도록 雇傭量을 決定한다. 이런 경우에 社會의 有效需要의 크기가 增大하거나 生産物의 價格

(P)이 貨金財價格(P^* : 物價水準)에 비해 上昇하면 勞動需要曲線은 右로 shift 하게 된다.

이것을 物價가 一定하다고 假定하는 한 完全雇傭을 實現시키자면 有效需要가 增大되어야 하나 이것은 利率率 → 投資問題로 歸結되므로 不完全雇傭均衡의 領域을 벗어날 수 없다.

다음 物價가 上昇할 때는 有效需要增大를 考慮한 古典學派的인 立場에서 完全雇傭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實質賃金($\frac{W}{P^*}$)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貨幣賃金 W는 下方硬直的의이므로 움직일 수가 없고 物價 P^* 가 올라 生産物의 價格이 上昇하면 企業은 勞動需要를 增大하므로 右로 勞動需要曲線이 移動된다.

이때 物價上昇에 의한 實質賃金의 下落에도 불구하고 勞動供給이 增大하면 勞動市場에는 非自發的 失業이 存在한다. 즉 케인즈 失業理論의 framework는 非自發的 失業이 存在하는 一般的인 事項에 있어 勞動者의 限界 非效用은 實質賃金보다 낮은 반면에 企業家는 항상 利潤極大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케인즈 雇傭理論을 검토하여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다.

케인즈 雇傭理論에서 完全雇傭을 達成하자면, 첫째 中央銀行에 의한 貨幣量 增加에 ($M + \Delta M$) 의하여 流動性 選好曲線을 shift 하여 利率率을 下落시켜서 投資를 增大시키면 實質乘數效果를 통해 所得과 雇傭量이 增大하는 政策이 가능하다. 둘째 方法은 政府投資를 증대하여 財政乘數效果를 통해 所得과 雇傭量을 증대하는 方法과, 세째는 租稅政策에 의한 富 및 所得의 平準化는 消費性向을 높혀 雇傭量을 증대시키는 方法과, 네째는 物價를 上昇시켜서 勞動의 供給曲線 自體를 完全雇傭點에 이르는 점까지 移動시키는 方法이 存在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雇傭增大理論이 결국 通貨量 자극에 의한 方法이기 때문에 케인즈 理論은 inflation이라는 結果는 需要面이나 供給面에서 同一하게 나타나 는 현상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21) 總體的 生産函數 $Y = f(N, k, t)$
 N : 雇傭率, k : 資本, t : 技術
 k, t 는 一定하다고 가정하면
 $Y = f(N)$

22) J. M. Keynes, *op. cit.*, 1973, pp. 12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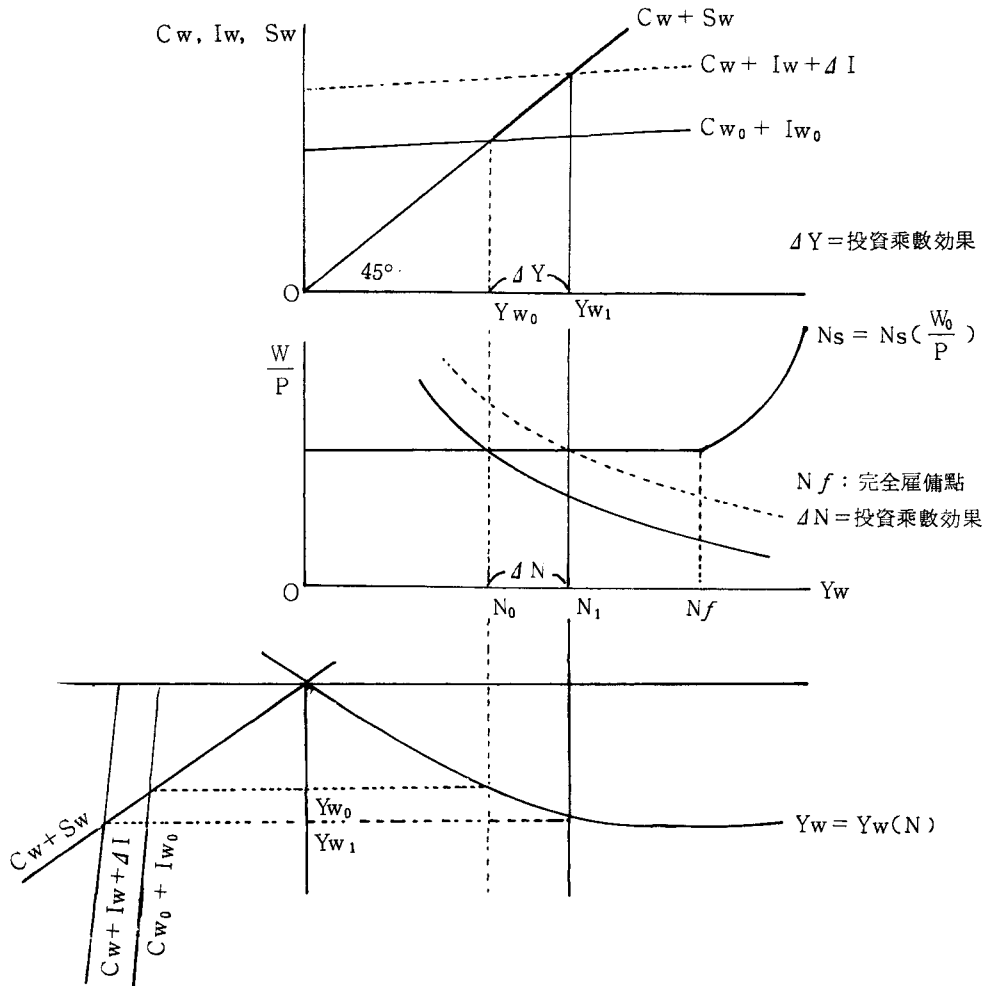


그림 - 2. 均衡勞動量 決定

4. 케인즈 理論에 대한 批判

1974年 히스(J. R. Hicks)는 「케인즈 經濟學의 危機」²³⁾에서 「一般理論」은 初志一貫의인 思想의 흐름이 아니며, 다른 著者들과도 흐름이 連結되어 있지 않다고 論難發生의 必然性을 示唆했다.

또한 케인즈 理論을 史學者들은 20世紀의 3/4分期로 「케인즈時代」로 記述하지만 1950~60년대의 經濟붐(boom)이 케인즈 經濟學의 成立으로 말하기에는 의문이 많다고²⁴⁾ 밝혔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資本主義經濟는 케인즈가 豫測했던 慢性的 不況이나 失業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經濟學者의 關心은 不況이나 失業의 問題에서부터 인플레이와 經濟成長의 問題에 關心이 集中되었다. 그러면 케인즈의 一般理論에 一般的인 問題點과 理論의 限界로 批判하고자 한다.

첫째, 케인즈는 所得과 雇傭에 영향을 주는 것은 投資이므로 投資의 純粹理論에 問題點을 指摘할 수 있다.

두번째는 投資에 영향을 주는 利率과 資本의 限界效率의 問題이다.

세번째는 利率에 영향을 주는 貨幣供給과 金融政策의 양향인 流動性 選好理論이다.

以上の 3가지 理論中心은 投資 流動性 選好, 資

23) J. R. Hicks,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JRJO, Jahnsson Lectures Oxford, Basil Blackwell, 1974), p. 5.

24) *Ibid.*, pp. 1~2.

본의 限界効률이다. 利率은 調整可能變數이고 政策變數가 되므로 投資를 決定하는 것은 資本의 限界効률인데 資本의 限界効률은 一種의 未來期待豫想收入인데 그것은 막연한 不確實한 概念이다. 이 不確實性과 期待는 流動性과 資本의 限界効률에 영향을 미치는 心理的 現象이다. 그러므로 雇傭과 所得은 投資에 集中되고 投資는 資本의 限界効률과 利率에 의해서 決定되므로 資本의 限界効률의 概念인 不確實性은 케인즈理論의 가장 중요한 概念이 되는 동시에 解釋方向에 대하여 論難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케인즈 物價理論은 流動性 選好理論으로서 貨幣需要에 대한 心理的 現象이므로 流動性은 價值的貯藏機能(stock of values)과 市場性(market ability)이 前提되어야 하는 것이다. 投資乘數가 作用하려면 誘發投資가 없어야 할 것이며 乘數效果의 時差의 反應速度가 問題된다.

이것은 企業의 在庫量의 多少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Pigou가 主張한 바와같이²⁵⁾ 純投資의 額面價額이 利率의 變動이 있다면 축소되기 때문에 利率이 固定되어 있어야 하고 投資時期에 金融政策의 變化가 없어야 한다.

Hicks²⁶⁾는 投資乘數에서 價格問題를 대두시켜서 1965년 「價値와 成長」의 VII章에서 한 나라의 國民經濟를 伸縮價格經濟(flex price economy)와 固定價格經濟(fix price)로 구분하고 前者는 Walares의 新古典學派의 paradigm이 妥當한 經濟이며, 後者의 경우를 케인즈가 分析對象으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케인즈의 分析對象인 「固定價格經濟」에서는 價格이 固定되어 있어서, 需要供給이 一致하여 價格이 決定되는 것이 아니며 不均衡한 狀態인 false trading at false prices에 놓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케인즈가 巨視理論體系에 前提한 「過少雇傭均衡」은 巨視的 不均衡狀態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Hicks가 1937년 Mr. Keynes and the

Classic²⁸⁾에서 케인즈 經濟學을 不況의 經濟學으로 斷定했으나 價格經濟를 導入하여 自己理論을 修正했다.

다음은 資本의 限界効률과 貨幣理論에 대한 케인즈 理論에 問題點을 批判하고자 한다.

Hicks²⁹⁾는 1974년의 著書에서 IS-LM 曲線模型의 基礎가 되어 있는 1937년의 論文과 다른 점은 원래의 IS-LM 曲線模型에서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세 가지 側面을 生産物市場과 貨幣市場으로 구분하고 生産物市場에서 投資乘數와 資本의 限界効률(投資理論)을 結合하여 I·S 曲線을 導出했다.

그러나 1974년의 著書³⁰⁾에서는 投資理論과 貨幣理論 및 流動性 選好理論을 한데 묶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케인즈를 종래의 IS-LM 曲線模型에서 부각된 fiscalist(財政論者)가 아니라 monetarist(貨幣理論家)로써 再評價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結合하는 이유는 利率이 投資理論과 貨幣理論을 連結시켜 준다는 確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利率이 投資의 중요한 決定要因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經驗的인 문제이다. 그러나 1930年代의 英國과 美國에 있어서는 事業家가 投資決定에 있어서 利率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³¹⁾

이것이 케인즈 理論의 貨幣·利率·流動性에 관한 빛을 잃게 된 주요 원인일뿐만 아니라 케인즈안의 주의가 財政主義가 된 중요 이유이다.

2차 대전 이후 政府機能의 擴大로 財政投資인 政府支出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인플레이가 發生한 것은 케인즈의 理論의 結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케인즈는 短期失業과 長期失業을 구분하지 못했고, 케인즈의 完全雇傭의 概念은 Pigou³²⁾가 지적한 바와같이 最大雇傭可能과 同一한 것이다.

또한 一般理論에 있어서 가장 큰 混亂의 概念은 賃金單位(wage unit)라는 것이다. 즉 賃金單位의 所得은 貨幣賃金으로써 一般的인 上昇이 있을 때 모든 價格이 同一한 比率로 增加한다는 事實이다. 그

25) A. C. Pigou, Mr. J. 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Economics*, Vol. 3, May 1936, pp. 115 ~ 132.

26) *Ibid.*, pp. 19 ~ 30.

27) J. R. Hicks, *Capital and Growth* (Oxford: Clarendon Press, 1965), VII, pp. 76 ~ 83.

28) _____, Mr. Keynes and the "Classic," A suggested interpretation, *Economics*, Vol. 5, April 1937, pp. 147 ~ 159.

29) _____, *op. cit.*, 1974, pp. 31 ~ 32.

30) *Ibid.*, pp. 30 ~ 57.

31) *Ibid.*, p. 33.

32) A. C. Pigou, *op. cit.*, pp. 115 ~ 132.

래서 케인즈는 貨幣資金이 一定한 失業의 狀態와 또 하나는 需要壓力이 資金을 上昇하도록 하는 完全雇傭의 狀態를 의미한다.

따라서 完全雇傭은 인플레이의 關門이다. 完全雇傭에 미치지 못하는 한 資金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므로 인플레이션 없는 完全雇傭을 위해서는 需要를 적절히 統制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根本적으로 케인즈가 貨幣資金의 變化原因에 관한 어떤 理論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資金이 勞動의 희소성 때문에 上昇하여 이루어지는 完全雇傭과 資金이 희소성 原因으로부터 上昇할 여유가 없는 失業狀態와의 사이를 구분해서 본다면 失業狀態에서 貨幣資金이 上昇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은 인플레이션을 갖지 않는 完全雇傭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라는 見解가 된다. 이것이 케인즈 理論의 批判의 最大對象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936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위험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케인즈가 主張하려고 한 것은 디플레이션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資金은 失業이 存在할 때 必然적으로 下落하지 않으며 또한 勞動이 不足이 있었을 때 必然적으로 上昇하지도 않았다.

Phillips 曲線³³⁾에 있어서 失業이 낮으면 낮을수록 資金上昇률이 높다는 사실은 失業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에서 발견된 統計의 事實이다. 그러므로 需要 인플레이션은 沈滯期에 있어서는 적게 나타나지만 異常景氣에 있어서는 더 큰 인플레이션이 된다. 資金이 異常景氣에서 上昇하지만 沈滯期에 資金은 下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實質價格率³⁴⁾이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存在했던 것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貨幣利率은 貨幣價値의 期待下落率로 調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의 均衡은 높은 貨幣利率을 意味한다. 이와같이 1970年代에 들어와 stagflation 現象, 不完全雇傭下的 物價上昇 壓力이 강하고 財政政策으로 財政을 擴大하니 物價가 더욱 上昇하게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로써 合理的 期待形成假說(hyack frideman, Rational expection hypothesis) 등이 登場하여 自然利率率·自然失業率 등의 概念으로 經濟現象을 설명하고 있다.

5. 結論 : 케인즈 理論에 대한 解析方向

이상의 케인즈 理論의 限界와 問題點을 보면서 케인즈를 어떻게 解釋하느냐 하는 方向에 따라서 現代經濟學은 各學의 分派를 形成하고 있다. 그것은 케인즈를 Walares의 一般均衡體系로서 케인즈를 解析하는 一群의 學者(主流派)와 主流派의 一般均衡理論의 解析은 케인즈의 貨幣理論에 대한 貨幣의 役割을 歪曲한다고 主流派를 批判하는 一群의 學者(不均衡論者)와 케인즈의 期待의 不確實性和 歷史的 時間을 想定한 反均衡論의 體系로 케인즈 理論을 解釋하는 3個의 學者群으로 分派되어 케인즈 理論을 해석하고 있는 實情이다.

主流派에서는 케인즈 一般理論을 Walares 流의 一般均衡理論의 틀속에서 理解하는 Lange, Samuelson, Patinkin 등의 新古典學派의 解決에 의해 케인즈 一般理論은 一般均衡의 特殊理論으로 限定하고 마는 것이다.

Lange에 의하면 케인즈의 非自發的 失業이란 價格의 完全伸縮性에도 불구하고 勞動에 대한 需要減退로 야기된 勞動의 超過供給狀態로 야기된 彈力的 價格豫想으로 인해 持續되는 不均衡論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Patinkin에 의하면 非自發的 失業이란 勞動의 超過供給狀態가 制度的 條件 때문에 초래된 貨幣資金·價格·利率 등의 硬直性으로 인해 解消되지 않은 不均衡狀態로 把握하고 있다. 그러므로 財政金融政策을 통해 總需要營利를 적절히 수행하면 完全雇傭과 物價安定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不均衡論者(kornai) 등의 케인즈 解釋은 케인즈의 分析方法이 一般理論에서 比較靜學的 方法이 使用되고 있으나 理論 自體는 動態的 過程을 다루는 不均衡理論이라고 보아야 케인즈의 革命性을 올바르게 認識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主流派에서는 均衡論의 立場에서 케인즈 理論을 解釋하고 있기 때문에 케인즈의 非自發的 失業을 不均衡狀態로 보고 있지만 不均衡現象으로 把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古典學派의 價格理論에서는 需要와 供給에 不一致가 發生하면 먼저 反應하는 調節變數가 價格이고, 다음에 數量調節이 일어나는 식으로 調節變數들의 反應速度가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의 一般理論에서는 反應順序가 數量調整에서 일어나고, 다음으로 價格調整이 일어나는 順序로 逆轉되고 있다는 점이 두 理論의 가장 중요한 差異點이라고 볼 수 있다.

33) A. W. Phillips,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ys Rate in the United Kingdom 1861 ~ 1957," *Economic*, N. S. Vol. 25, 1958, pp. 283 ~ 299.

需要와 供給이 一致하지 않을 경우 價格의 즉각적인 調節이 일어나지 않고 數量調節이 먼저 일어난다면 이것은 實際去來가 不均衡의 價格體系下에서 行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去來가 不均衡價格體系下에서 施行된다고 하는 것은 去來者들이 그들이 願하는 量만큼의 去來量을 實現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예를 들면 勞動市場에서 勞動者들이 勞動에 대한 需要減退로 인해 現行 貨幣資金水準에서 勞動者들이 願하는 만큼의 勞動販賣을 實現할 수 없게 되면 勞動市場에서는 최초의 非自發的 失業이 일어나고 商品市場에서는 商品에 대한 勞動者들의 有效需要가 減縮되게 되는 것이다. 이 商品에 대한 需要減縮이 累積的인 收縮過程인 乘數過程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一般均衡理論의 個別去來者는 完全競爭市場에서는 價格受用者이기 때문에 자기가 願하는 만큼의 去來量을 實現시키고 있다고 假定한다. 또 去來는 均衡價格體系下에서만 이루어진다고 假想하기 때문에 어떤 財貨도 自己價値를 完全하게 實現할 수 있다. 따라서 均衡理論體系에서는 貨幣란 다른 하나의 財貨일 뿐이다. 그러나 不均衡價格體系下에서는 貨幣를 除外한 다른 모든 財貨들은 自己價値를 完全하게 實現할 수 있다는 보증이 없다. 唯一한 貨幣만이 모든 市場에서 去來될 수 있는 唯一한 財貨인 것이다. 따라서 不均衡理論에서는 貨幣의 形態로 나타나는 有效需要는 단순한 名目需要 이상의 적극적인 意味를 갖게 된다.

이리하여 價格分析과 貨幣分析의 統合이 不均衡理論에서는 均衡理論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게 理解된다. 특히 不均衡論者들은 調節變數중 數量變數가 價格變數보다 먼저 反應한다는 主張의 根據가 價格의 硬直性的 假定에 의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未來에 대한 計算의 不確實性 때문에 價格이 無限히 빠른 速度의 伸縮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事實만 認定되면 充分하다는 것이다.

古典學派 價格理論에서 價格機構의 完全伸縮性이 當然視되고 있는 근거가 去來者들의 完全知識(完全情報)이라는 假定에 두고 있음을 볼 때 이 主張은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obinson을 中心으로 하는 케인즈의 一般理論을 不均衡論的이 아니라 反均衡論的(anti-equilibrium)으로 解釋하는 後케인즈派는 均衡을 넓은 意味로 解析한다. 後케인즈派가 케인즈 理論의 革命的인 것을 反均衡論的인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은 未來에 관한 不確實性 企業家의 期待의 投割, 그리고 企業家의 animal spirit 등에서 推論하고 있다.

또한 케인즈를 古典學派 理論과 결별하게 한 것은 未來에 관한 期待의 不確實性을 케인즈가 自己理論속에서 導入한데 있다고 主張한다. 未來에 관한 不確實性을 理論속에서 導入한다는 것은 經濟活動이 歷史的 時間이라는 次元에서 영위된다는 分명한 事實을 理論속에서 導入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經濟理論體系에 歷史的 時間을 導入한다는 것은 一般體系 均衡을 무너뜨리는 反均衡論的인 意味를 가진다. 왜냐하면 一般均衡體系란 歷史的 時間의 經過를 다룰 수 없는 限界를 갖는 論理的 時間(logical time)뿐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一般均衡理論에서는 不可逆的인 歷史的 時間과 未來의 不確實性이 完全히 추상된 理論體系임에도 불구하고 比較靜學的 方法에 의해 歷史的 時間의 經過를 수반하기 마련인 變化를 分析하려고 함으로써 變化와 差異를 혼돈하는 誤謬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 後케인즈派의 見解이다.

歷史的 時間의 導入의 또 하나의 積極的 意義는 貨幣의 役割을 一般均衡論的인 見解가 不均衡論的인 立場과는 전혀 다른 角度에서 接近한다. 즉 貨幣란 歷史的 時間을 통해 不確實한 未來를 향해 진행되는 市場經濟에 있어서 過去와 現在과 未來를 연결시키는 고리인 것이며, 이것은 過少雇傭 均衡狀態를 貨幣를 사용하는 生産經濟에서만 야기되는 특유한 現象으로 인식하게 하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生産過程에는 時間이 所要되므로 企業家는 生産過程이 완료되기 전에 生産要素의 雇傭과 原料購入에 사용할 수 있는 充分한 貨幣를 所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生産要素 雇傭이나 原料購入 去來란 一種의 先物契約行爲이며 勞動者의 雇傭은 貨幣資金契約에 의해 行해진다. 이 先物契約에 의해 保證된 貨幣資金의 固着性이 資本主義經濟로 하여금 時間이 所要되는 生産過程을 着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生産 가능한 財貨들의 價格의 固着性的인 基礎가 된다.

이런 意味에서 先物去來는 固定된 貨幣契約에 의해 行해진다는 事實이 貨幣의 概念에 根本的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貨幣로(혹은 numerie) 看做될 수 있다는 一般均衡體系的인 貨幣觀과는 다른 것이다. 流動性이란 이와같은 先物契約의 決濟時期의 到來로 인한 契約上의 債務履行이나 不確實하기는 하지만 發生할 수 있는 潛在的인 債務履行을 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債務履行의 必要性에 對處하기 위해 충분한 貨幣殘高나 流動性 資産을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未來가 不確實한 現實世界에서 未來에 대

한 不安을 야기시킬 事件들에 관한 對象은 貨幣 및 流動資産에 대한 급격한 需要增加를 야기시키며 이것은 非自發的 失業을 招來하게 된다는 것이다.

2차 대전후 나타난 인플레이션 現象에 대해 超過 需要의 문제로 把握하여 總需要 調節, 즉 政府支出을 縮少하고 租稅收入을 늘리는 方法에 의해 解決될 수 있다고 본 主流派의 理論은 Philip 曲線에 의한 失業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trade-off 관계가 存在한다는 이들의 見解는 總需要 管理政策이 制約條件이 되는 것이다.

後케인즈派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견해는 主流派를 인플레이션을 需要側面에서 보기 때문에 累縮政策에 의해 이에 對處하려고 하나 이것은 不況만 심화시킬 뿐 인플레이션은 治유되지 않고 stagflation 현상만 야기시킨다고 主張한다. 後케인즈派는 인플레이션의 原因은 所得分配를 둘러싼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적절한 所得政策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李亨純, 巨視經濟學의 論點, 서울: 法文社, 1982.
- 2) 閔俊植, 巨視經濟理論의 새 課題, 서울: 裕豐出版社, 1983.
- 3) 趙 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서울: 比隣出版社, 1979.
- 4) Branson, W. H., *Macro Economic Theory and Policy*.
- 5) Dillard, D., "The Economics of John Maynard Keynes," *The Theory of a Monetary Economy*, N. J.: Prentice - Hall, Inc., 1958.
- 6) Fisher, I., "The Theory of Rate of Interest," in *The Lessons of Monetary Experience: Essays in Honour of Irving Fisher, 1937*, Reprinted in *Collected Writings*, Vol. XM.
- 7) Hicks, J. R., *Capital and Growth*, Oxford: Clarendon Press, 1965.
- 8) ,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JRJO, Jahnsson Lectures Oxford, Basil Blackwell, 1974.
- 9) , Mr. J. 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Economics*, Vol. 3, May 1936.
- 10) Keynes, J. M., *A Tract on Money Reform*, 1924.
- 11) ,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Money*. 1936.
- 12) , *The Treatise on Money*, 1930.
- 13) Philips, A. W.,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ys Rate in the United Kingdon 1861 ~ 1957," *Economic*, N. S. Vol. 25. 1958.
- 14) Pigou, A. C., Mr. J. M. Keynes,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Economics*, Vol. 3, May 1936.